■ 교회소식 ■

- 1.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2. 유로룩스의 온 가정에 소망이 넘치는 2017년 되시기 바랍니다.
- 3. 어제 남선교회 모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4. 오늘 예배 후 정기제직회로 모입니다.
- 5. 다음 주일(26일)은 우리교회 설립 21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 6. 공동기도 제목: 1) 서인원 목사의 완전한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 2) 나라와 민족의 미래에 공의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 3) 각 지역 선교사들의 사역과 가족을 위해
 - 4) 교우들의 가정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 지난 주일 통계 ■

십일조: 이강준박지선

월정헌금: 박정환이지아 무명1 구역헌금: 온유

감사헌금: 서인원정지윤 김세희 이수빈이종화 김승환 유태식 무명1

지난주 출석: 성인 31 청소년 3 주일학교 8 유아 9

■ Eurolux와 함께하는 협력선교 ■

사회선교	세월호 기억저장소 (한국)				
아시아선교	스리랑카 농아교회 (김형근 선교사)				
서유럽선교	미자립 한인교회 (독일 베를린 한빛교회)				

■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서인원 교회학교: 이혜영 성가대장: 강주현 예배반주: 강주현 남선교회: 이강준 여선교회: 이귀영 선교부장: 윤혜숙 사회봉사부장: 서민 2017-08

주후 2017년 2월 19일



2017 교회표어 :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미5:14)



2017년 교회력 성구 :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라" (겔36:26a)

교회주소 71, Route de Kayl L-3514 Dudelange Luxembourg Tel.+352 691 224 686 Homepage www.euroluxchurch.org E-mail: info@euroluxchurch.org

주 일 예 배 순 서

【 주현절 후 제 7주, 녹색 】

주일오후 13:30 pm

사회: 윤혜숙 권사
예배의 부름인도자
입 례 송성가대
기 원 인도자
♠ 영광찬송 다함께
♠ 성시교독 ····· 다함께
♠ 신앙고백 다함께
찬 송 380. 나의 생명 되신 주 다함께
대표기도이귀영 집사
응 답 송시온성가대
성경봉독 김승환 학생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같이
찬 양시온성가대
말 씀 서인원 목사
" 선택적 고난의 의미 "
새김의 기도다함께
찬 송 341. 십자가를 내가 지고 다함께
봉 헌 다함께
평화의 인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함께
교회소식인도자
♠ 파송찬송 620.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다함께
♠ 축 도 ··································
▲ 프트 지기에 다 이어 나 조 나가 바라니다

♠ 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예배 후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베드로전서 2:18-25

- 18.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 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 19.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 20.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 21.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 22.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 23.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 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 24.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 25.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 왔느니라. 아멘 (개역개정판)

1 Peter 2,18-25

18 Slaves, in reverent fear of God submit yourselves to your masters, not only to those who are good and considerate, but also to those who are harsh. 19 For it is commendable if someone bears up under the pain of unjust suffering because they are conscious of God. 20 But how is it to your credit if you receive a beating for doing wrong and endure it? But if you suffer for doing good and you endure it, this is commendable before God. 21 To this you were called, because Christ suffered for you, leaving you an example, that you should follow in his steps. 22 "He committed no sin, and no deceit was found in his mouth." 23 When they hurled their insults at him, he did not retaliate; when he suffered, he made no threats. Instead, he entrusted himself to him who judges justly. 24 "He himself bore our sins" in his body on the cross, so that we might die to sins and live for righteousness; "by his wounds you have been healed." 25 For "you were like sheep going astray," 6 but now you have returned to the Shepherd and Overseer of your souls. Amen (NIV)

예 배 위 원									
	2/26	3/5	3/12	3/19	3/26	4/2	4/9		
예배사회	이강준	최진영	윤혜숙	박 찬	이강준	이귀영	최진영		
기도위원	최진영	강주현	이강준	송영찬	이귀영	박지선	윤혜숙		
성경봉독	이준애	유태식	박소영	김승환	송혜빈	박현아	이지아		
강단장식	3월 강주현 4월 이준애								